

자료명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비즈니스 리더 라운드테이블'
엠바고	5월 26일(금)자 朝刊부터(통신, 인터넷 등은 5/25(木) 12:00부터)
문의처	탄소중립팀 김녹영 팀장(02-6050-3804), 이시형 과장(3813)

기후행동 앞장서는 글로벌 기업 한 자리에... '비즈니스 리더 라운드 테이블' 개최

- 대한상의, 25일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비즈니스 리더 라운드테이블' 개최
- 구글, 삼성, SK, RWE, 폭스바겐 등 글로벌 주요기업 총출동... 탄소중립과 기업의 역할 논의
- 한덕수 총리, 탄소중립은 선택 아닌 생존 위한 필수...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해 지원할 것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25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의 역할' 을 주제로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비즈니스 리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개막식에 이어 진행된 비즈니스 리더 라운드테이블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탄핵위 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어명소 국토부 2차관, 송상근 해수부 차관 등 우리 정부와 우즈베키스탄, 가나, 라오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오만, 이집트 등 외국 정부 장차관급 인사가 참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미국 뉴올리언스, 뉴질랜드 오클랜드 등 시장급 인사들도 참여해 글로벌 도시들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상황을 공유했다.

구글, 삼성, SK, RWE, 폭스바겐 등 글로벌 주요기업 총출동... 탄소중립과 기업의 역할 논의

기업측에서는 삼성, SK, 현대기아차, LG, 포스코, HD현대, 카카오 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구글엑스모빌(미국), RWE·폭스바겐(독일), 에퀴노르(노르웨이), 오스테드(덴마크) 등 탄소중립 글로벌 선도 기업들도 함께 자리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 모범사례와 기업 간의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최태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 <추후 배포 예정>

올린 앙(Yolyn Ang) 구글 아태 사업개발 총괄 부사장은 '지구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 발표를 통해 “구글은 2017년에 이미 탄소중립을 달성했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100%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이 됐다” 며 “2020년부터는 56 억불에 달하는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탄소감축 제품기술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은 지속가능한 방식의 비즈니스 운영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으며, 기업 운영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우선시 하는 것은 물론 사업 파트너에 대한 탄소 솔루션을 지원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이 보다 나은 탄소감축 제품과 기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독일 최대 에너지 기업 중 하나인 RWE의 옌스 오르펠트(Jens Orfelt) 아태지역 총괄 사장은 “RWE가 125년간 석탄, 가스, 원전 등 화석연료 발전사업을 해왔는데 지금은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있다” 며 “배출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폐쇄하는 한편, 그린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공급망에 의한 간접 배출량을 축소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에퀴노르의 잉군 스베고르덴(Ingunn Svegård) 아태 지역 수석 부사장, 한화큐셀 이구영 대표이사, Werner Grub 덴마크 무역투자펀드(EKF) 전무가 차례로 기업의 다양한 노력과 사례를 공유했다.

한덕수 총리, 탄소중립 선택 아닌 생존위한 필수...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지원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환경규제와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었다” 면서 “기업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기후산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뒷받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번 기후산업국제박람회 비즈니스 리더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국내외 글로벌 선도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탄소감축을 위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 며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앞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공유해 글로벌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비즈니스 리더 라운드테이블 개요 >

- ◇ 일시/장소 : '23.5.25(목) 12:00~13:45 / 벅스코 컨벤션홀(2층)
- ◇ 참석자 :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50여인
(정부) 김상협 탄핵위 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어명소 국토부 2차관, 송상근 해수부 차관
(해외) 리차드 물러 UC버클리 교수, 우즈베키스탄·가나·라오스·방글라데시 장관, 캄보디아·오만 차관 등
미국 뉴올리언스 시장, 앙골라 우안다 주지사, 케냐 몸바사 주지사 등
(국내기업) 삼성, SK, 현대기아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두산, 카카오, 고려아연, 한국전력 등
(외국기업) 구글, RWE, 에퀴노르, 오스테드, 폭스바겐, 엑슨모빌 등
- ◇ 주요내용
 - 인사말씀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 축사 : 한덕수 국무총리
 - 발제 : Yolyn Ang 구글 부사장(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의 역할)
 - 지정발언 : Jens Orfelt RWE 아태지역 총괄사장,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Ingunn Svegården 에퀴노르 아태지역 수석 부사장, 이구영 한화큐셀 대표이사, Werner Grub 덴마크 무역투자펀드(EKF) 전무 등